10년도 못살고 떠난 어린 세자 죽어서 '황제'로

㊼ 추존 진종과 효순왕후- 영릉

진종(眞宗)은 영조가 즉위하기 전 연잉군 시절, 스물여섯 살에 낳은 맏아들이다. 어머니는 정빈 이씨이며, 비는 좌의정 조문명의 딸 효순왕후이다. 1724년 영조가 즉위하자 경의대군(敬義大君)에 봉해졌고, 다음해 일곱 살 나이로 왕세자로 책봉되었다. 그러나 3년 뒤 만 10년도 살지 못하고 요절했다. 영조의 아들 비극이 시작되었다. 이복동생 장헌세자(莊獻世子=사도세자)가 새 세자로 책봉되었다. 그 역시 뒤주 속 질식사라는 전대미문의 형벌로 죽었다.

영조는 사도세자를 폐한 뒤 사도세자의 맏아들인 세손(정조)을 효장세자의 양자로 입적시켜 왕통을 잇게 했다. 명분이 뭐길래? 열 살에 죽은 아이가 서류상 정조의 아비이다. 요즘 시각으로 보면 코미디다. 처연한 블랙 코미디다. 후일 정조는 할아버지 영조의 유지를 받들어 효장세자를 진종으로 추존했다. 1908년(융희2년) 7월 30일 허물어져 가는 조선왕조의 마지막 황제 순종은 진종을 황제로 추존, 진종황제가 되었다. 피지도 못한 채 떨어진 꽃봉우리가 과한 대접을 받은 셈이다. 대군에서 황제까지 고속 승진했다. 그러나 죽은 어린아이에게 그것이 무슨 위로가 될까.

곁에 묻힌 효순왕후(孝純王后)는 진종의 비(妃)이다. 아버지는 풍양 조씨로 좌의정 문명이다. 1727년(영조 3) 13세에 세자빈에 간택되어 9세인 효장세자와 가례를 올렸다. 1735년 현빈에 봉해졌다. 남편이 열 살에 죽었으니 당연히 소생은 없다. 1751년(영조27) 창덕궁 건극당에서 춘추 37세로 승하했다. 죽은 뒤 1752년 효순(孝純)이라는 시호를 받았고, 1776년 장헌세자(莊獻世子)의 장남(정조)을 입양 받아 승통세자 빈(承統世子嬪)의 호를 받고, 정조의 즉위로 왕비로 추존되었다.

영릉은 세자와 세자빈의 예우에 따라 능을 조성했기 때문에 다른 능에 비해 한결 간소하다. 황제와 황후로 추존되었으나 봉분 주위에 병풍석, 난간석 등이 없다. 석양, 석호도 한 쌍씩이다.

영조의 장수와 아들들의 요절은 함수 관계가 없을까. 자식들의 수명을 승계 받아 장수한 것은 아닐까. 과보는 참으로 서늘할 정도로 공평하다. 선업(善業)에는 선과(善果)가 열리고 악업(惡業)에는 악과(惡果)가 열린다.





영릉을 답사한 가족이 장명등을 살피고 있다(사진 왼쪽). 금천교 너머 영릉 전경이 보인다.

영조는 그 어머니의 신분이 미천함에서 오는 심적 갈등이 심한데다가 이복형인 경종의 독살에 관련되었다는 혐의와 심지어는 숙종의 아들이 아니라는 유언비어에 시달리기까지 했다. 마침내는 왕으로서의 존재를 부정당하는 무신란(이인좌의 난)까지 겪었다.

이런 환경 탓인지는 모르나 영조는 때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이상 행동을 하는 성격장애의 면모를 보이기도 하였다. 자녀에 따라 극단적인 애증을 나타낸 것이 이를 말하며 이것이 결국 사도세자의 울화병을 유발하고 부자간의 갈등을 초래했다.

조정의 인사문제에서도 자신의 감정기복에 따라 사소한 실언을 문제 삼아 심지어는 3정승을 일시에 파직시켰다가 다음날 바로 복직시키는 경우가 흔했고, 이런 경향은 나이가 들면서 더욱 심해졌다.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인 것은 분명히 살인이다. 그러나 왕에게는 살인죄가 없다. 단지 어명이 있을 뿐이다. 즉흥적 지시이든 고뇌 끝에 내린 결단이든 어명 한마디면 목숨을 잃는다. 제드 러벤펠드(JED RUBENFELD)는 현재 예일 대학 법과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저명한 법률학자다. 그는 학자이기 이전에 열렬한 문학청년이었다. 2007년 국내에 소개된 그의 소설 <살인의 해석>에서 영조의 심리를 조명해본다. 작가가 만들어낸 허구적 인물인 '영거'라는 미국 정신분석자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대한 색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영거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존재한다. 하지만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아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모가 느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소유하고 싶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어머니의 입장에서 보면, 딸이 태어났다. 딸은 자랄수록 예뻐지고 젊음의 생기가 넘친다. 하지만 어머니는 점점 늙어가고 볼품없어진다. 여기서 딸에 대한 질투심이 생기고 가상의 감정으로 만들어서 느끼게 된다. 어머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없애려고 합리화한다.

이 논리에 영조와 사도세자를 대입해보면 약간의 실마리가 풀린다. 영조에게 세자는 개인적 비행을 저지르는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당파와 대립해 자기 당파를 형성한 '정적'이었다.

사도세자를 죽일 당시 영조는 칠순을 1년 앞둔 노령에 실제로 노환에 시달리고 있었다. 매일 약원에서 올리는 탕제를 들어야 할 형편이었다. 영조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영조는 물론 영조의 정치적 세력인 노론이 긴장했다. 영조가 죽고 세자가 즉위하면 소론, 남인 등과 손잡고 노론을 향해 칼을 뽑을 것이다. 세자는 당시 대리청정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만들어낸 작품이 나경언의 고변이다. 세자가 저지른 비행은 이미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라 약발이 떨어졌다. 세자를 제거할 마지막 카드는 역모로 모는 것이다. 역모는 혈육의 정도 통하지 않는 전가(傳家)의 보도(寶刀)다. 세자에게 역모를 씌울,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노론 대신들이 치밀하게 대본을 작성하고 고변할 인물을 물색했다. 대리청정 하는 권력 실세 세자를 고변하는 것이니 잘못되면 그 대가가 죽음이다.

나경언의 고변은 이렇다. 영조 38년(1762) 5월 22일의 '영조실록' 기록이다. 세자가 죽은 것은 그로부터 한 달 후, 윤5월 21일이다.

"나경언이 세자를 제거할 묘책을 내어 형조에 글을 올려, 전하의 아주 가까운 인사가 불궤한 모의를 한다. 형조참의 이해중이 영의정 홍봉한에게 달려가 고하니, 홍봉한이 말하기를, '이는 전하께 직접 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해중이 세 차례나 주상을 배알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놀라 입시를 명하여 그 글을 바쳤다. 임금이 상을 치면서 크게 놀라, 변란의 주액(肘腋, 팔꿈치와 겨드랑이, 가까운 주변을 뜻함)에 있구나. 친국하지 않을 수 없다."

나경언의 고변서는 영조와 두 대신이 읽은 후 바로 불태워졌다. 음모의 냄새가 짙다. 나경언은 양반도 아닌 일개 서민이다. 서민이 고변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을 했을 경우, 그것도 대리청정 하는 세자와 관련된 고변이라면 진위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조사 후 근거가 나왔을 때 임금에게 보고하는 것이 정상이다. 영조실록은 나경언에 대해, '사람이 불량하고 남을 잘 꾀어냈다. 가산이 탕진되어 자립하지 못할 지경이다'라고 적고 있다. 오늘날도 가끔 볼 수 있는 매수의 혐의가 있다. 그로부터 세자는 중죄인이 되어 한 달 후, 이승을 하직해야했다.

후회는 결코 앞서는 법이 없다. 맏아들 효장세자가 10세로 병사하자 영조는 시민당에서 곡을 하고 세자의 세자궁 집영문 밖까지 나왔다. 말년에는 사도세자를 죽인 것을 저리게 후회했다. 그러나 후회와 용서는 동의어가 아니다.

*****영릉(永陵)**

경기도 파주시 조리면 봉일천리에 있는 21대 영조의 장자인 효장세자(孝章世子:진종(眞宗)으로 추존되었음)와 그의 비 효순왕후 조씨(孝純王后趙氏)의 능이다. 공순영릉이라 불리는 능역 안에 있다. 사적 제205호. 능호는 1729년(영조 5) 정하였다. 왕릉과 비릉(妃陵)을 쌍릉으로 두어 각각 혼유석만 앞에 두었다. 장명등은 그 중간에 배치하였고, 석양 · 석호 각 2필이 능 주위를 호위하고 있다. 당초 효장세자의 장례 때 영조가 정자각은 옛 제도에 따라 지을 것과 석물은 사가(私家)의 석물에 비하여 좀 풍후(豊厚)하게 하라고 명하여 그대로 하였다.

10세에 요절한 영조의 맏아들 정조의 양부로 정조에 의해 진종 · 순종에 의해 황제로 추존

글=이우상(소설가 asdfsang@hanmail.net), 사진=최진연(사진작가)

이 름	나 이	신장	학 력	직 업	주소지
정영식	1964년생	170	고 졸	공 무 원	서 울
임용우	1966년생	174	고 졸	자 영 업	청 주
노해용	1972년생	173	고 졸	C E O	청 주
이준우	1964년생	168	고 졸	회 사 원	대 전
김현태	1957년생	173	고 졸	회 사 원	대 구
조복재	1965년생	180	고 졸	일반전문직	구 미
임태빈	1981년생	180	대 졸	공 무 원	서 천
김기엽	1969년생	180	전문대졸	자 영 업	서 울
홍봉표	1967년생	180	전문대졸	회 사 원	경기고양
최명길	1974년생	165	고 졸	회 사 원	경기시흥
오상택	1965년생	165	고 졸	회 사 원	경기부천
한용석	1975년생	167	고 졸	회 사 원	부 여
최경복	1971년생	174	고 졸	회 사 원	전 주
이정배	1966년생	172	고 졸	회 사 원	충북영동
임형준	1973년생	176	전문대졸	회 사 원	대 전
이영근	1976년생	165	대 졸	회 사 원	대 전
김대중	1974년생	173	대 졸	회 사 원	경기용인
정화섭	1960년생	175	대중퇴	공 무 원	경기이천
이동희	1972년생	180	대 졸	회 사 원	경북예천
강정복	1965년생	170	고 졸	자 영 업	인 천
정지영	1974년생	174	중 졸	회 사 원	수 원
임인갑	1974년생	165	고 졸	회 사 원	대 구
이현철	1972년생	175	방통대재	금 융 직	서 울
김종희	1963년생	163	고 졸	회 사 원	서 울
이영일	1965년생	165	대 졸	회 사 원	강원태백
박종구	1972년생	175	고 졸	회 사 원	경기안양
최용상	1970년생	170	방통대재	공 무 원	서 울
이동원	1970년생	172	대 졸	회 사 원	서 울
남정대	1971년생	173	고 졸	회 사 원	경북구미
육근성	1970년생	185	전문대졸	회 사 원	충북옥천
박이수	1960년생	168	중 졸	회 사 원	경기수원
배영순	1956년생	150	대중퇴	자 영 업	경기화성
오성택	1970년생	165	고 졸	사업예정	경기부천
변희섭	1965년생	174	고 졸	회 사 원	경북구미
김대환	1973년생	172	대 졸	학원실장	광주광역시

이 름	나 이	신장	학 력	직 업	주소지
김창영	1970년생	163	대 졸	복 지 사	충주시
박영학	1967년생	170	고 졸	회 사 원	고양시
홍진석	1968년생	167	대 졸	시설관리	부천시
조성현	1969년생	170	전문대	회 사	서 울
배병언	1967년생	169	대 졸	회 사	부 산
전남진	1972년생	172	전문대	치기공사	서 울
이규안	1970년생	165	대 졸	건 설 사	광주시
이광표	1968년생	168	고졸자	영 업	서 울
권순석	1978년생	171	대 졸	건 설 사	경기도
박영규	1966년생	182	고졸자	영 업	전주시
문윤종	1970년생	163	고졸자	영 업	광주시
김길성	1975년생	175	전문대	공 무 원	대 전
민의식	1969년생	172	고 졸	운 송 업	부 산
최정우	1978년생	178	대 졸	건 설 사	서 울
노금광	1972년생	162	고 졸	회 사	진해시
정연종	1959년생	165	고 졸	공 무 원	충 남
오세준	1975년생	175	고 졸	회 사	경기도
박헌득	1964년생	163	고 졸	회 사	서 울
임상훈	1973년생	172	대 졸	회 사	경기도
연길호	1973년생	175	대재학	공 무 원	경기도
박성준	1965년생	169	고 졸	회 사	대구시
박준규	1971년생	170	대 졸	건 설 사	제천시
최용우	1962년생	164	고 졸	자 영 업	홍성군
조현욱	1972년생	166	고 졸	조 리 사	경기도
김진묵	1969년생	170	고 졸	공 무 원	충 북
김재원	1966년생	175	고 졸	회 사	대 구
서종은	1971년생	170	고 졸	회 사	경기도
이건우	1971년생	173	대 졸	자 영 업	경주시
박천수	1975년생	160	전문대	발전공사	강원도

[캠페인 PR]
현대불교신문 구독자 인연찾아주기
2교 "아름다운 인연 찾기" 광고 구독

현대불교신문 독자님들을 위한 인연 찾기 캠페인입니다.
부처님 제자로서 서로 아끼고, 함께 닦아 갈 인연을 찾습니다.
오랜 인연의 기다림으로 여성 불자님들의 전화를 기다립니다.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대성사 주지 혜철

주관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지사장 혜철스님 충북 옥천군 옥천읍 교통리 297-4 대성사
전화 | 043)732-5560 / 010-9422-8453 팩스 | 043)732-5520
홈페이지 | www.dss.or.kr 다음카페 | cafe.daum.net/dasungsa

